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단순 오타를 제외하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음영 표시를 했습니다. 음영 표시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For 2026 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독서편 정오표 (문제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16페이지 (2쇄부터 반영)	DAY 22	DAY 23

For 2026 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독서편 정오표 (해설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200페이지 36번 문제 5번 선지 '실전에서 판단 과정' 두 번째 문장 (2쇄부터 반영)	숫자가 클수록 협화도가 크다고 했지?	숫자가 클수록 협화도가 작다고 했지?

For 2026 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문학편 정오표 (문제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47페이지 15번 문제 3번, 4번 선지 순서 (2쇄부터 반영)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③ 진퇴양난(進退兩難) ④ 만시지탄(晩時之歎)

For 2026 P.I.R.A.M 국어 생각 워크북 문학편 정오표 (해설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권 17페이지 6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선지 그대로 허용할 수 있겠지요? '늙은이, 어른'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용어를 '부모, 형'이라는 가족 차원의 용어에 빗대고 있으니까요.	선지 그대로 허용할 수 있겠지요? '부모, 형'이라는 가족 차원의 용어를 '늙은이, 어른'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용어에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1권 216페이지 24번 문제 5번 선지 해설 (2쇄부터 반영)	<table border="1"> <thead> <tr> <th>선지 유형</th> <th>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th> </tr> </thead> <tbody>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왕대비라도 안 잡혀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지.</td> </tr> <tr> <td>해설</td> <td>'임장군전'에서는 '왕대비'도 알뜰없이 잡혀 갔지만, (나)에서는 '박씨' 덕분에 '왕대비'가 잡혀 가지 않습니다. 이는 '왕대비'라도 잡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서 패전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위로 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은 (가)에서도 제시된 내용이었습니다.</td> </tr> </tbody> </table>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왕대비라도 안 잡혀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지.	해설	'임장군전'에서는 '왕대비'도 알뜰없이 잡혀 갔지만, (나)에서는 '박씨' 덕분에 '왕대비'가 잡혀 가지 않습니다. 이는 '왕대비'라도 잡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서 패전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위로 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은 (가)에서도 제시된 내용이었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선지 유형</th> <th>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th> </tr> </thead> <tbody> <tr> <td>실전에서의 판단 과정</td> <td>승전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지.</td> </tr> <tr> <td>해설</td> <td>'임장군전'에서는 '왕대비'가 그저 '용골대'의 아량 덕에 풀려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박씨'의 활약 덕분에 '왕대비'가 잡혀 가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이는 굴욕적인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하는 백성들이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은 (가)에서도 제시된 내용이었습니다.</td> </tr> </tbody> </table>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승전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지.	해설	'임장군전'에서는 '왕대비'가 그저 '용골대'의 아량 덕에 풀려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박씨'의 활약 덕분에 '왕대비'가 잡혀 가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이는 굴욕적인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하는 백성들이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은 (가)에서도 제시된 내용이었습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왕대비라도 안 잡혀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지.													
해설	'임장군전'에서는 '왕대비'도 알뜰없이 잡혀 갔지만, (나)에서는 '박씨' 덕분에 '왕대비'가 잡혀 가지 않습니다. 이는 '왕대비'라도 잡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서 패전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위로 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은 (가)에서도 제시된 내용이었습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승전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이었지.													
해설	'임장군전'에서는 '왕대비'가 그저 '용골대'의 아량 덕에 풀려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박씨'의 활약 덕분에 '왕대비'가 잡혀 가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이는 굴욕적인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하는 백성들이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은 (가)에서도 제시된 내용이었습니다.													